

광양항 '한진해운 사태' 연 126억 피해 예상

박완주 의원 국감 자료 ... 컨테이너 물동량 14% 차지

한진 선적 전남 수출품목 100억 ... 피해 최소화 시급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광양항의 올 피해규모는 최대 30억원, 이후 연간 피해 예상규모는 최대 126억원에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전남도와 여수 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9일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양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은 총 232만 TEU를 기록했고, 이 중 한진해운이 차지

하는 비중은 32만TEU, 약 14%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적화물량을 비교했을 때, 광양항 전체 환적화물량 57만7000TEU 가운데 한진해운은 14만TEU,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지난 8월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광양항의 물동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 9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물동량 감소 규모는

5만TEU로, 피해액은 하역료 21억에 예·도선료 등을 더한 총 30억원의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도 이후 장기전망으로는 한진해운 파산 확정시, 연간 물동량 최소 14만TEU에서 최대 20만TEU 감소가 예상되며, 피해 예상규모는 최소 89억원에서 최대 1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물동량 감소뿐 아니라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대한 예·도선 업체, 감수, 고박, 줄잡이 등 용역업체의 피해도 예상돼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까지 한진해운이 이들 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액수는 총 12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남도 철강·가드레인·농수산물품 등 총 7개 수출업체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한 수출품목의 총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양항은 우리나라 2대 항만이자, 전라남도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요거점 중 하나"라며 "광양항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전라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장축제 시작 29일 광주 동구 중장로 5가 '추억의 테마거리'에서 복고풍 복장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뿔뿔이 터지는 소리에 놀라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추억의 중장축제는 '추억을 넘어 미래로!'란 주제로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금남로와 중장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윤장현 시장 '정책자문관 구속' 사과

시청 압수수색·공무원 참고인 소환 따라

정무라인 일괄 사의 표명

윤장현 광주시장이 최근 김모 전 정책자문관의 구속 사태와 관련해 29일 내부 계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지난 12일 김 전 자문관 구속 직후 대시민 사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날 사과문은 공직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윤 시장은 사과문에서 "참담하고 침통한 심정이며 무엇보다 공직자의 자존심이 꺾이고 명예가 떨어졌으며 시장으로서 책

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인척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고 뒤라고 설명할 길이 없다며 거듭 사과했다. 윤 시장은 또 "시장 혼자 투명하고 청렴하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었다. 제 주변부터 하나하나 빈틈없이 쟁겼어야 했다"며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엄정한 잣대로 관리 감독해야 했는데 저의 불찰로 공직자 여러분의 자존심이 꺾이는 일이 벌어졌다"며 고개를 숙였다.

흔들리는 시장을 바로 잡고 매진하겠다

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하루빨리 사건 실체가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광주시정과 직원을 지켜내고 잘못이 없는 공직자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인척 쇄신 단행,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일 처리 방식 개선도 약속했다.

이날 윤 시장의 사과문은 전남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김모 전 정책자문관의 시정개입 의혹과 관련 윤장현 시장의 결단 촉구한데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앞서 노조는 부적절한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기용돼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관계 없이 윤 시장이 선제적으로 큰 폭의 쇄신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용수 비서실장과 노성경 정무특

보, 김재철 참여혁신담당,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 등 윤 시장의 핵심 측근들은 이날 윤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 사퇴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 전 정책자문관의 동생인 김용환 비서관은 일괄사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이 이날 인척쇄신을 선언한 만큼 이들 중 선별적으로 사직자가 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장은 김 전 자문관 구속 기소에 맞춰 광주시정 7개 실·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해 김씨의 부당한 개입, 압력 등 연관성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전날에는 일부 사업 추진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문화·생태자원의 보고 '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전남도의회 제정추구안 통과

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안'을 심의해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섬은 유배지, 은둔지 등 격리된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나 현대에는 휴식과 힐링,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해양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전남에는 전국 3358개

섬의 65%를 차지하는 2165개(유인도 279개, 무인도 1천886개) 섬이 15개 시군에 널리 있어 섬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와 뛰어난 풍광을 간직하고 있다"며 "문화자원과 생태자원의 보고인 섬의 가치를 재발견해 섬을 살고 싶고 가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모든 국민이 1년 중 하루라도 섬을 생각하고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 "섬의 날에는 기념식을 비롯해 섬 컨퍼런스와 섬 민속공연, 섬 특산물 판매회, 섬 관광 프로그램 홍보 등과 같은 섬을 주제로 한 '섬 페스티벌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 1억 이상 매출 농가 비중 2% ... 전국 꼴찌

농가 10가구중 7가구 연매출 1000만원도 안돼

황주홍 의원 자료

전남이 연매출 1억원 이상 매출 농가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계청의 '2015 농림어업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농가 10가구 중 7가구는 농축산업의 연매출액이 1000만원도 안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총 농가는 108만 8518가구로 농축산업의 매출액이 1000만원도 안 되는 농가가 68%에 해당하는 73만8139가구나 됐다. 1000만원 이상 5000만원인 미만인 농가는 24.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농가는 5.1%, 1

억원 이상 농가는 2.7%(2만9259가구)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농업지역 중 1억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3만3487가구 가운데 1428가구인 반면,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15만141가구 가운데 2%에 해당하는 3423가구였다. 다음으로 경북 및 충북이 각각 2.5%, 경남과 충남 각각 2.7% 순이었다.

황 의원은 "농림축산 판매력이기 때문에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농민들 대다수가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다"며 "영세 소규모 농가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에 세계 최초 바이오부탄올 공장 들어선다

GS칼텍스 시범공장 착공식

여수에 세계 최초로 폐목재와 폐농작물 등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바이오부탄올을 생산하는 시범공장이 들어선다.

2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이날 오전 여수공장에서 500억원을 투자하는 바이오 부탄올 시범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전남도, 여수시, GS칼텍스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바이오 부탄올 시범공장에서는 목재류, 농업부산물 등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연간 400t 규모의 휘발유용 자

동차 연료 및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하는 접착제, 착향료 등의 원료를 생산한다.

세계 최초의 준상용급 바이오 부탄올 시범공장이 여수지역에 착공됨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창조경제센터와 연계해 바이오 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전후방 중소기업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춰 나갈 계획이다.

신연호 전라남도 창조산업과장은 "바이오 부탄올 시범공장 착공은 석유화학산업의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도에서도 바이오 화학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과제 발굴·기획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남구 진월,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의 중심지

SH BUILDING

스케일이 다른 가치는 투자자의 특권이 됩니다!

남구 빚고울CC, 노인건강타운과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우월한 입지

삼면이 확보된 최고의 조망권 및 노출광고가 확실한 상가

투자가치

고소득 직군의 인적 유입 및 소비증대로 수익증가

미래가치

어느 누구도, 앞으로 제시할 수 없는 위치대비 합리적 분양가

고객가치

현천내 천년나무APT

효천 제일풍경채APT

남행복주택

빚고울CC 노인건강타운 빚고울전남대병원

광주대학교

현장 SH BUILDING

봉선동 →

진월지구

↓ 화순 도곡

성황리 분양중

시행 성희개발(주)

시공 한아종합건설(주)

설계·감리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광주 남구 진월,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의 중심지

SH BUILDING

스케일이 다른 가치는 투자자의 특권이 됩니다!

남구 빚고울CC, 노인건강타운과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우월한 입지

삼면이 확보된 최고의 조망권 및 노출광고가 확실한 상가

투자가치

고소득 직군의 인적 유입 및 소비증대로 수익증가

미래가치

어느 누구도, 앞으로 제시할 수 없는 위치대비 합리적 분양가

고객가치

현천내 천년나무APT

효천 제일풍경채APT

남행복주택

빚고울CC 노인건강타운 빚고울전남대병원

광주대학교

현장 SH BUILDING

봉선동 →

진월지구

↓ 화순 도곡

성황리 분양중

시행 성희개발(주)

시공 한아종합건설(주)

설계·감리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문의 062)676-4006

010-5681-4015

* 본 이미지는 소위타이머를 동기화하여 제작된 것입니다.